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9.23)

1. 한일 외교 관련

□ [일본 정부 동향]¹⁾

- 9월 20일 한일 외무국장급 협의를 개최하였지만, 양 측의 입장이 평행선으로 끝난 것을 두고 일본 외무성 간부는 “관계 개선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발언하였으며, 외무성 내에서는 사태 해결은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한층 더 강해진 것으로 평가
-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타키자키(滝崎)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한국 측의 책임으로 국제법 위반 상태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한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NHK는 보도함.
- 단, 이 문제가 양국 간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해결을 위해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확인함.
- 한편 외무성은 향후에도 국장급 협의는 지속해 나가면서, UN 총회 개최 시기에 양국 외무장관 회담도 성사되도록 일정을 조율해 나갈 방침임.

2. 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

□ [일본 언론 동향]²⁾

- 일본 언론은 북한이 5월 이후 반복하여 발사한 단거리 신형 탄도미사일과 관련, 발사 후 미사일 궤도를 탐지하지 못한 적이 몇 차례 있었다고 보도
- 궤도를 파악하지 못한 미사일 중에는 일본 본토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1) 「日韓 事態打開は困難との見方 一層強まる 外務省」 『NHK NEWS WEB』 (2019. 9. 21).

2) 「北朝鮮ミサイル 探知できず 政府、低高度が理由 技術開発進展に危機感」 『静岡新聞』 (2019. 9. 23).

- 한편 일본 정부는 미사일의 낮은 비행 고도, 변칙적인 궤도 등으로 인해 미사일을 추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 일본 정부는 북한이 향후 미사일 기술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으며, 복수의 이지스함 운용, 레이더 기능 강화 등 대응책을 검토중에 있음.
- 한편 한국 측은 탐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일본 언론은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

3. WTO 양자협 의 관련

□ [일본 언론 동향]³⁾

- 닛케이에는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 60일 이내의 양자협 의에서 해결을 보기는 어려우며, 제1심인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로 심리가 넘어갈 것이라고 보도
- 한편 WTO 상급심은 현재 기능정지 직전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과 관련, 1심에서 상소하여 상급심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분쟁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 상급심의 정원 7명이지만, 과거의 심리에 불만을 가지고 WTO를 비판하는 미국이 심의위원의 재임 및 보충을 거부하고 있어서 현재 심리에 필요한 최저 인원인 3명밖에 있지 않으며, 12월에는 남은 인원들 중 2명의 임기가 끝나 신규 안건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면 일본은 WTO에서 안보를 이유로 무역제한조치 예외사유를 인정한 GATT 제21조를 근거로 한국 정부의 주장에 반대 논리를 펼 것이라고 전망

3) 「日韓、2国間解決難しく、輸出管理、WTO審理の公算、上級委判断には2年以上。」 『日本経済新聞』(2019. 9. 21).